



전라도음식이야기 김관수 대표, 진안군 고향사랑기부

전주시 인후동에 소재한 '전라도음식이야기' 김관수 대표가 작년 500만원 기부 이후 올해도 500만 원 수입을 방문해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라도음식이야기'는 3대째 내려오는 50년 전통의 음식점으로 호남 동부 산악권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재료로 춘하추동 계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전통 한정식집이다. 김관수 대표는 전복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홍보하고 전 세계에 한식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으며, 한문학회 협회 이사장직을 겸임하며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계승·연구하고 한식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관수 대표는 "생각만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고향 진안에 대한 사랑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전대, 동행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전주전대대학(총장 조희천)은 학교기업 JK힐링센터에서 동행사회적협동조합(센터장 권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행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 설립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참여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발달단계에 맞는 표준화된 재활 평가와 신체계측 평가 후 재활 필라테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재활치료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교류를 위한 공동 활용,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실습 및 봉사활동 참여 현장 맞춤형 보건 의료계열 재활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전문가 멘토 그룹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이은주 남원 운봉읍장, 추수현장 방문

남원시 운봉읍 이은주 읍장이 23개 읍내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 주요 사항도 발빠르게 홍보하고 있다. 최근 운봉읍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뿐 아니라 운봉읍과 관련된 주요 시정 소식 및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남원의 가을 축제, 남원누리시민증 홍보 등 주민들이 현업에 밀려 주요 시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신흥동-황산면 '지평선 맛집' 음식부스 이용 결연

김제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신흥동장 및 신흥동 동장협의회장(성춘경), 새마을부녀회장(김경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산면(면장 임미경)과 제2회 김제지평선 축제 황산면 음식부스 이용에 대한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연은 최근 지역 축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실 먹거리 근절과 먹거리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김제지평선축제에 새롭게 시도되는 대표 맛집 선정 프로젝트인 '맛보지고 캠페인' 운영에 따라 일부 음식부스 미운영 읍면동 주민의 축제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운영되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지평선 맛집 음식부스에서 황산면은 현수대에 '신흥동'을 표기하고, 신흥동은 주민 홍보를 통해 황산면 음식부스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영호 신흥동장은 "신흥동과 연결한 황산면 지평선 맛집 이용을 통해 음식부스 활성화와 주민 간 상호 교류의 장이 되어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유럽인증 획득

부안 테라릭스, 수소전시회사 SZU Korea로부터 CE인증서 전달 받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기업이자 부안 수소연료전지 전문 벤처기업인 '테라릭스(주)'가 주력 생산 제품인 공랭식 연료전지 기술 기반의 정격출력 1.5kw급 이동형 수소 발전기의 유럽인증(CE인증 Conformite Europeen)을 획득하고 26일 H2 MEET 2024(수소전시회)에서 SZU Korea로부터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CE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유럽인증이란 유럽연합(EU) 시장에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유럽 통합규격 인증마크로 유럽국가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인증마크를 뜻한다. 이번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격출력 1.5kw(최대출력 2kw)급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로 소형특장차 작업용 전원, 가정용 비상발전기 등과 같은 특수목적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로 충전효율이나 장기 운전이 어려움이 있는 배터리 배터리에 최적화된 제품이며 화재와 같은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개발된 공랭식 연료전지 기술의 경우 가볍고 부피가 작은 장점을 가진 반면 내구성과 출력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테라



릭스에서는 내구성 소재 발굴 적용 및 공기·열·물관리에 최적화된 스택 개발 등을 통해 공랭식 연료전지 기술의 단점을 크게 개선하고 국내 최초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유럽인증까지 획득함에 따라 관련 생산품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는 "이번에 획득한 CE인증은 테라릭스가 추구하는 비전인 인류가 필요한 솔루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에너지 선도기업으로써의 도약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원 전북대 총동창회 발족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공식 발족했다. 초대 회장에는 서남용 의원이 추대됐다. 전북대 총동창회(회장 최병선)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양오봉 총장과 서거석 교육감 정태현 총학생회장 전북대 출신 기초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간의 유대감 형성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발대식의 준비위원장은 완주군 서남용 의원(수학과 80학번), 간사는 유이수 의원(경제학과 88학번)과 신유정 의원(사회학과 18학번)이 맡았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등 대학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끈끈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전북대 동문 기초의원들은 "모교 발전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초대 회장에 추대된 서남용 의원은 "모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 등 정부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지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전북대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정읍아산병원, 도제교육 협약 체결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26일 정읍교육지원청 정책협약실에서 정읍아산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 내 학생의 직업현장 적응역량 강화와 직업경험을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은 정읍지역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주3회, 총7주간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정읍아산병원 내에서 △병원 안내 △직장예절 및 전 화예절 △환자접수 및 안내문 교육 △순 위생 △청소 및 정리정돈 △환자차이동/이송 △응급처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직업 현장의 경험이 제공되며, 지역사회 학생이 취업 가능한 새로운 직업 개발 및 취업으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은 "지역 내 학생의 직업 현장의 적응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마을과 찾아가는 '논린 카페'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가 26일 치매안심마을과 함께 찾아가는 '논린 카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신흥동 치매안심마을(월성 성리·성서마을) 주민들이 치매예방교실 '나도 바리스타!'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지평선 아카데미 참여 시민들에게 커피와 차 음료를 내놓았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당일 행사에 참여한 치매안심마을 주민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일이 즐겁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알리고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였다"고 밝혔다. 시는 신흥동 김산동 요촌동 5개 마을에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동향면 찾아가는 치매극복 주간 행사 주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라영현)는 26일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군에서 지정된 치매극복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동향면 치매환자 및 가족,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치매예방체조와 치매안심센터 사업홍보 동영상 시청은 물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란 제목의 오영진 강사의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건강한 노년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것과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를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비전대-군장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 뷰티·헬스케어 산업 ICC는 지난 20일과 25일 두차례 군장대학교 LINC 3.0 사업단 디지털 문화예술 ICC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는 두 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첫날인 20일에는 전주비전대학교 김진영 교수가 '재활 보조기기의 향후 활용과 적용을 위한 재활공학 학적 이론'을 주제로, 이어 25일에는 군장대학교 정한신 교수가 '보행 재활로봇의 임상적 중재 과정'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펼쳤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일상생활 보조로봇, 상지 재활로봇, 보행 재활로봇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로봇 재활 전문가 과정도 포함됐다. 또한 재활 분야에서 AR(증강현실)을 활용한 해부학 교육과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4차 산업과 연계된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강 후에는 물리치료 실습실을 견학하며, 두 학교가 보유한 3차원 동작분석기와 신체 기능평가 장비 및 근감소증의 평가 장비를 통한 신체활동을 평가하는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진영 학과장은 "이번 공동 교육 프로그램은 두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로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ICC 특화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도통동, 자매결연 도시 방문 시정 홍보

남원시 도통동은 지난 26일, 자매결연 도시인 사천시 선구동을 방문하여 국제드론제전, 남원누리시민제도 등 주요 시정 사항 및 행사를 홍보했다. 도통동과 사천시 선구동은 주민자치 발전의 일환으로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와 우호를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해 왔으며, 금번 방문은 10월 25일로 예정된 선구동 방문 일정에 앞서 사전협의 차 추진되었다. 이날 선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소년자 도통동장은 10월 중 주요 행사인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2024 남원아침 △2024 문화의 달 등을 안내하였다. 또, △남원누리시민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시정사항을 홍보하였다. 특히 생활안전 4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남원누리시민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 선구동 직원·동장 등에 남원누리시민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신청서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소년자 도통동장은 도통동과 선구동이 영호남, 동서간 화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교류와 화합을 지속해 나가는 등 상호 발전과 상생을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4 신천지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

'2024 신천지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가 26일 신천지 마산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20년간 교회를 시무해온 한 목회자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성경대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울산과 부산에서 말씀대성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영남권 목회자와 신앙인들의 추가 개최 요청이 꾸준히 이어진 데 따라 이번 말씀대성회를 추가 개최하게 됐다 고 한다. 따라서 목회자 100여명을 포함 총 1만600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 또 장소와 거리 등 물리적인 한계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목회자와 신앙인들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약 2시간 진행된 말씀대성회에 37만5155건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옥기 기자